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개항기(1876년-1910년)를 중심으로-

Japanese Society and Shinto Shrine in Busan(1876-1910)

지도교수 류교열



2010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한현석

본 논문을 한현석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이수열	인
위원	김 승	인
위원	류교열	인



2009 년 12 월 26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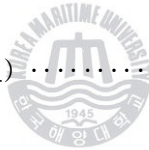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일문초록	iv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정리 및 연구방법	2
II. 개항이전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5
1. 부산포왜관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5
2. 두모포·초량왜관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9
3. 초량왜관 내 神社의 위치와 명칭	11
III. 개항기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19
1. 일본 거류민사회의 형성과 운영.....	19
2. 일본 거류민의 神社정비	24
(1) 神社의 수리 및 신축	24
(2) 祭神의 鎮坐와 그 배경	33
IV. 결론	42

표

<표 1> 삼포왜관의 상황(1495년 10월 25일)·····	7
<표 2> 부산일본인거류지 관리기관 및 관리관의 변화(1876-1904년) ·····	20
<표 3> 부산일본인거류지 자치기관 및 자치대표의 변화(1876-1913년)·····	22
<표 4> 金刀比羅神社改建並辨天社修繕 대리위원 선거참가자 및 득표현황(1882년)··	26
<표 5> 龍頭山神社의 祭神현황(1907년) ·····	34
<표 6> 조선 내 교파신도별 신자 수(1924년) ·····	37
<표 7> 辨天社の 祭神현황(1899년) ·····	39
<표 8> 辨天神社의 祭神현황(1907년) ·····	39



그림

<그림 1> 「釜山和館竣工圖」(1678년)·····	12
<그림 2> 변박의 「倭館圖」(1783년)·····	13
<그림 3> 「草梁倭館繪圖」(조선후기)·····	13
<그림 4> 「倭館圖」(19세기 말) ·····	14
<그림 5> 「釜山窯圖」(19세기 말) ·····	15
<그림 6> 「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1886년) ·····	15



開港都市釜山の日本人社会と神社

-開港期(1876-1910年)を中心に-

韓 賢 石

韓国海洋大学大学院東アジア学科

抄 録

本研究は開港期釜山における日本人社会と神社に対して居留民(特に対馬出身者)の活動を中心に社会史的観点から分析したものである。明治政府は1868年に「神仏分離令」、1871年の「社格制度」、そして1876年の「小祠廃併合令」等、国家主導の神社・神道政策を執り、地方の小規模の神社の社号及びその祭神まで、国家の管理下に置こうとした。その結果、約20万社であった日本の神社数は1914年には約12万社にまで減少した。

それは、日本をはじめ植民地地域における神社も日本政府の支配下に置かれていたとの分析を可能にした。しかし地域社会が持つ固有の信仰が国家(政策)に帰結される過程を多様な事例から分析した安丸良夫の研究(1979)によると、明治政府のいくつかの政策によって、数多くの神社がすぐさま国家に帰属されたとは思えない事実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な事例は開港期釜山の日本人居留地における神社からも確認できる。既に述べたように、1868年から、明治政府が日本の国内において国家主導の神社・神道政策を執った狙いとは、地域の小規模の神社や祭神までも国家の管理下に置くことであった。それは、地域民の生活習慣に対する統制とも密接な関係があったといえよう。しかし、釜山の開港直後(1880年)から韓日併呑(1910年)まで、居留地では明治政府の意図とは異なる地域の特色が強く現れる神社の整備が行われていた。ここで注目すべき点は、草梁倭館の時期からそこで生活していた対馬出身者が、神社の改建及び祭神の鎮座などの整備過程に深く関与していた事実である。

この時期、神社の整備過程で確認できる明治政府の神社・神道政策の展開とともに、またそれとは異なる形態で展開されていた神社の整備の有様は、日本各地における神社のみならず、植民地にあった神社が持つ社会史的な意味合いを再度考えさせる視点を提供するといえよう。



I. 서론

1. 연구목적

메이지정부의 최우선 급무는 새롭게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한 천황을 민중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이 근대국민국가의 창설에 근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메이지정부가 1867년 10월 17일, ‘神祈官再興’ 방침을 명시한 이후부터 1868년 3월 28일 ‘神佛判然令’, 1871년 5월 ‘社格制度’, 1876년 2월 ‘小祠廢併令’ 등과 같은 神社·神道政策을 실시한 것도 바로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였다.

神社는 도쿠가와시대 이전부터 다양한 신앙과 습합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정부가 실시한 神社·神道政策에 따라 神社에서 불교 및 민간신앙적 요소가 제거되기 시작했으며, 그 자리는 천황계 祭神과 정부가 인정한 祭神으로 채워져 갔다. 이러한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에 의해 당해 시기 일본 전국에 약 20만 개소에 달했던 神社가 1914년에는 약 12만 개소로 감소하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神社들은 전례 없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속으로 강제 편입 되었다.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은 이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대대로 신앙해오던 대상이 강제로 사라지는 혼란을 경험한 민중의 직·간접적인 불만과 반발이 내재하고 있었다.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의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 국내의 神社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함께 해외에 건설된 식민지 神社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점을 제공한다.

1876년 「朝日修好條規」가 강제로 체결되고 그 이듬해인 1877년, 부산의 초량왜관이 폐쇄되고 그 부지에는 일본인거류지가 만들어진다. 거류지에는 여러 개의 神社가 있었는데, 그것은 초량왜관시절 대마도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습속에 따라 세워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 神社들은 초량왜관이 거류지로 변모되는 과정 중 방치되어 마치 폐사와 같은 상태였다. 이에 1880년을 기점으로 거류민들은 神社의 정비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대마도 출신자들의 영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거류지에서도 神社의 정비가 메이지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1896년 對馬親睦會에 의해 거류지의 金刀比羅神社에 합된 弘國大神은 옛 대마도주였던 宗義智를 神格化한 것이다. 일본인 거류지는 초량왜관과 달리 그 구성원들이 일본의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거류지의 神社에 대마도를 상징하는 祭神의 鎮坐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메이지정부가 神社·神道政策을 통해 神社와 祭神을 통제하여, 그 神社의 신앙자들을 국가로 귀속시키려 했던 의도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

흥미로운 사실은 개항기 부산 일본인거류지의 神社와 祭神을 둘러싼 이러한 측면이 일본국내에서 발생했던 민중의 반발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이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전개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팽창을 하던 시기, 일본정부의 神社·神道정책이 식민지 지역 사회의 일본인과 피식민지민에게 각각 어떠한 형태로 수용되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행연구정리 및 연구방법



植民地 또는 海外의 神社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는 이미 193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青井哲人の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2005)와 같은 건축사·도시계획사의 시점에서 접근한 흥미로운 성과까지도 나오고 있다. 국내의 神社연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초기 국내의 神社연구는 1930년 대 후반의 일본의 황민화정책에 따른 神社參拜強制와 기독교 탄압 등에 주목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여 조선의 각 지역을 대표했던 神社에 대한 분석으로 그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神社에 대한 일본과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가 시기로는 1910

1) 1896년 당시 재부산일본인의 총 인구는 11,854명이었으며, 각 지역별 인구와 비율은 나가사키 3,587명(30.3%), 야마구치 3,294명(27.8%), 오이타 970명(8.2%), 후쿠오카 646명(5.4%), 구마모토 460명(3.9%), 오사카 427명(3.6%), 히로시마 310명(2.6%), 사가 257명(2.2%), 효고 233명(2.0%), 도쿄 229명(1.9%), 기타 1,441명(12.2%)였다. (최영호, 박진우, 류교열, 홍연진 지음, 『부관연락선과 부산 -식민지도시 부산과 민족 이동』, 논형, 2007, p.63에서 재인용.)

년대 이후를, 그리고 京城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선의 각지에 건립되었던 神社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²⁾

이러한 국내의 神社연구 경향 속에서 부산지역 神社문제를 다룬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³⁾ 부산의 龍頭山神社와 龍尾山神社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식민지 조선의 神社에 대한 연구 안에서 조금씩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의 神社연구는 ‘국내 각 지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세워졌던 개별 神社들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910년대 부산의 龍頭山神社와 龍尾山神社를 중심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 부산의 神社에 대한 분석은 龍頭山神社의 前身이 되는 초량왜관의 神社에 대한 정리를 시작으로 1916년 부산의 龍頭山神社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까지를 시야에 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京城 이외 지역의 神社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과 함께 함께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이 밖에 전주지역의 神社를 통해 京城 이외 지역의 神社에 대한 연구는 점차 시작되고 있다. 반면에, 아직까지도 개항기(1876년-1910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神社 연구는 靑井哲人의 연구를 제외하면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다. 靑井哲人は 仁川과 京城의 神社가 「勝地」로써 居留民들로 하여금 형성되었고 그것이 조선총독부의 지배 하에서도 지속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⁴⁾

개항기 조선의 神社연구는 1868년부터 시작되는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정책이 일본 국내와 그 외의 지역에서 어떠한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보이며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 국내의 神社들이 1871년 5월부터 실시된 ‘社格制度’에 따라 국가로부터 社格을 부여받고 점차 국가의 관리 하로 편입되었던 것에 반해, 조선에 만들어진 神社의 경우에는 1910년이 훨씬 지나서야 社格의 부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894

2) 김대호의 「1910년-1930년대 초 경성神社와 지역사회의 관계」(2009), 同 「1910-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영」(2004), 김승태의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神社」(2007) 등이 있다.

3) 김승,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 제20호, 부경역사연구소, 2007.

4) 靑井哲人, 「朝鮮の居留民奉齋神社と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 『朝鮮學報』(172), 1999, pp.69-115.

년, 부산 일본인거류지의 金刀比羅神社에 合祀되는 弘國大神의 경우와 같이 현지의 특성에 따른 祭神의 鎮坐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이 神社가 있는 곳 어디든지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 국내에서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이 추진된 결과, 전국의 약 20만개에 달하던 神社가 1914년에는 약 12만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安丸良夫⁵⁾는 이러한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에 의해 일본 민중들이 겪었던 신앙의 변화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일반 민중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크고 작은 반발의 움직임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에 따라 민중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의 神社가 가진 역사 속에도 지배와 피지배라는 구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면모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직 조선의 神社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開港期 그리고 부산이라는 필드를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와 神社에 대해 거류민들(특히 대마도 출신자들)의 활동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5) 야스마루 요시오,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종교 변혁』, 이원범 역, 소화, 2002.

II. 개항이전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부산지역은 일찍부터 일본과의 접촉이 있어왔던 곳이다. 특히, 일본인을 위한 공간이었던 왜관은 그러한 경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초부터 존재해왔던 왜관은 조선 내부의 작은 일본인 사회였다. 그 안에서의 일본인들의 삶은 일본 본토의 마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그곳에 그들의 고유 신앙의 상징인 神社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하에서는 왜관을 중심으로 개항 이전 부산지역에 형성된 일본인사회와 神社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부산포왜관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조선 조정은 왜인에 대한 대책 등에 따라 15세기 초, 부산포와 제포 그리고 염포에 ‘왜관’이라고 불리는 접대소 겸 상관을 설치하였다⁶⁾ 이때 부산포에 만들어진 왜관이 부산지역에 만들어진 최초의 왜관이다.

표면적으로 세 곳의 포소(부산포, 제포, 염포를 말하며 이하 ‘삼포’라고 함)는 단순한 입항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왜인들은 항해에 필요한 순풍을 기다린다가 선박의 수리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체재 기간을 연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마침내는 삼포에 집을 지어 정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곧 삼포는 사실상 왜인 거류지로 모습이 바뀌어 간다.⁷⁾

이렇게 정착하게 된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을지 조선왕조실록 중 태종 18(1418)년 3월 2일 부산포에 대한 기사와 성종25(1495)년 5월 10일 기사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사료 1>

㉠ 富山浦에 와서 거주하는 倭人이 혹은 商賈(상인-필자)이라 칭하고 혹은 遊女라 칭하면서 日本客人과 興利倭船(왕래를 허락한 무역선-필자)이 이르러 정박하면 서로 모여서 支待하고 남녀가 섞여 즐기는데, 다른 浦에 이르러 정박하는 客人도 또한 술을 사고, 바람을 기다린다고 핑계하고 여러 날 날짜를 끌면서 머물러 虛實을 엿보며 亂言하여 폐단을 일으킵니다.

6) 무라이 쇼스케, 『중세 왜인의 세계』, 이영 역, 소화, 2003, p.94.

7) 무라이 쇼스케의 전제서, p.95.

㉔ 戶曹(조선의 관청)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으니, 三浦의 왜인倭人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節目을 禮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邊將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앞서는 너희들이 경작하는 田地의 수효가 적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양전(量田) 한 결부(結負)의 수가 지난 날에 비교하면 갑절이나 많다. 전지가 있으면 租稅가 있게 되는 것은 天下古속에 바꿀 수 없는 몇몇한 법이며 또한 너희 나라에서도 필연코 시행하는 것이다. 너희들만이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前例에 의거하여 세금을 실어다 바치는 것은 도리의 당연한 바이다. 만약 그 세금을 실어다 바치는 것을 꺼린다면, 우리나라에서 경작해 먹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금년부터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염포가 아직 입항장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태종18년에는 부산포와 제포만이 왜인에게 허락된 장소였다. 그 때문인지 부산포에는 많은 왜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스스로를 장사꾼 또는 유녀라고 부르며 왕래를 허락한 무역선의 선원과 일본의 객인들을 상대로 술을 파는 등의 상업활동을 활발하였다. 그로부터 약 80여년 후인 성종25(1495)년에는 조선 조정이 그들의 경작지가 전에 비해 갑절로 늘었음을 이유로 징세를 명한다.⁸⁾

그들의 경작지가 늘었다는 부분은 그들의 인구가 세월을 거듭하며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성종25(1495)년 10월 25일에 경상도 감사 이극균이 올린 「삼포 왜의 호수」는 그것을 증명한다.

<사료 2>

釜山浦倭는 74호에 男子 1백 34명, 女子 1백 49명, 寺社 3개, 僧人 5명이었는데, 이제는 53호에 男子 72명, 女子 91명, 寺社 1, 僧人 2명을 더하였고, 鹽浦倭는 51호에 男子 70명, 女子 82명이며, 薺浦倭는 2백 4호에 男女 아울러 7백 41명, 寺社 10개, 僧人 40명이었는데, 이제는 1백 43호 男女 아울러 1천 7백 19

8) 김동철에 따르면 토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은 대부분 제포왜관의 주민이었다고 한다.

(김동철, 「15세기 부산포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 『지역과 역사』, 제22호, 2008.)

명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495년 10월 25일자 삼포왜관의 상황

	부산포	염포	제포	계
戶	127	51	347	525
人口	457	152	2,460	3,069
寺社	4	0	10	14
僧人	7	0	40	47

(참조: 『成宗實錄』, 성종25년(1495) 10월 25일 기사내용 정리)

최초 삼포에서 왜인의 거주는 60호⁹⁾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1495년에 이르면 약 9배가 증가한 525호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인구는 3천명을 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왜인의 증가는 국방상의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¹⁰⁾

왜관에서 인구의 증가 부분과 함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절(寺社)과 승려(僧人) 수의 증가이다. 제포왜관의 경우 절이 10개, 승려가 40명에 달하였고, 부산포왜관에는 절과 승려가 각각 3개에서 4개로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절과 승려의 수도 증가했다는 단순한 추론도 가능하지만 당시 왜관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활발했다는 점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부산포왜관에서 절에 대한 기록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1471년)에 수록되어있는 「東萊富山浦」라는 지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9) 1436년 宗貞盛은 조선 측의 요청에 따라 삼포왜관에서 378인의 住倭를 대마도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자기 管下의 60인은 예외로 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이 60인은 나중에 60戶로 해석되어 조선 측이 법적으로 인정한 삼포의 인구 상한이 된다.

(무라이쇼스케,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 손승철·김강일 역, 경인문화사, 2008, p.184)

10) 『成宗實錄』, 성종8(1478)년 12월 16일, 「이맹현 김승경 등과 삼포 왜인의 쇠환·왜전의 수조 등에 논의하다.」

당시 부산포에는 見江寺, 憩月菴이라는 두 개의 절이 있었다고 한다.¹¹⁾ 그런데, 절과 승려의 기록이 이처럼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에 반하여 神社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中世 일본의 많은 神社는 本地垂迹說¹²⁾에 의하여 神佛習合¹³⁾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그로인해 神社의 내부에 神宮寺¹⁴⁾라는 절을 두기도 하였고, 승려들은 神宮寺에 駐在하며 신전 앞에서 불경을 읽거나 불교식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日蓮宗은 神道와의 관계가 교의적으로 깊었으며, 中世 후반부터 近世에 걸쳐 神道思想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¹⁵⁾ 또한 中世의 神社는 불교건축과 차이가 없는 伽藍造¹⁶⁾나 香椎造¹⁷⁾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는데¹⁸⁾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산포왜관에 神社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삼포왜관에서 왜인들의 삶은 1510년의 삼포왜란과 1592년의 임진왜란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삼포왜란으로 인해 세 곳의 왜관은 부산포 한 곳으로만 축소되었고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며 기존의 왜관은 모두 사

11) 김동철 앞의 논문.

12) 神은 佛이 일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고 양자는 궁극적으로는 同體이며 不可分의 관계라는 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本地垂迹說」、『神道事典』、弘文堂、1999、p.404.)

13) 나라시대, 경전지식의 보급에 의해 신을 불교의 護法善神으로서 하여 神宮寺가 건립되고, 神前經讀이 행해졌다. 헤이안시대가 되어 신에게 菩薩號를 주고, 權現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또, 산악종교와 밀교가 습합하여 受驗道가 체계화되었다. 한편 헤이안 중기 이후, 본지 수적설이 전개되어 신들이 구제자로서 강하게 의식되었다. 가마쿠라 중기 이후는 神道가 이론화되는 과정으로 反本地垂迹說이 일컬어졌다. (『神道事典』、「神道と仏教」、pp.24-26.)

14) 신불습합사상에 근거하여 神社에 부속되어 운영되는 절. 寺院, 神願寺, 神護寺 등으로도 불림. (『神道事典』、「神宮寺」、p.108.)

15) 村上重良、『國家神道』、岩波新書、1970、p.49.

16) 伽藍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청정한 장소라는 의미이고, 후에는 사원 또는 사원의 주요 건물군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伽藍은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이고, 僧伽藍摩, 僧伽藍이 줄여져 伽藍이 되었다고 한다. 伽藍을 구성하는 주요 건물로, 세속간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山門, 본존을 모시는 本堂, 탑, 학습의 장인 講堂, 승의 거주지인 庫裏, 식당, 종루, 東司, 등이 있다. 이들 요소의 명칭, 배치나 수는 종파나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가마쿠라시대의 『聖德太子伝古今目録抄』에서는 金堂, 탑, 강당, 종루, 經藏, 僧坊, 식당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것이 가람이라 했고, 이것을 7당 가람이라고 불렀다. (www.wikipedia.org/ 중 「伽藍造」)

17)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동구에 있는 香椎宮의 본전 형식(www.wikipedia.org/ 중 「香椎造」)

18) 村上重良의 전게서, p.47.

라지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지역에 새로운 왜관이 만들어지게 된다.

2. 두모포·초량왜관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임진왜란 이후, 새롭게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막부는 대마도의 宗家를 통해 조선 조정에 교섭재개를 요청한다. 이에 조선 조정 역시 북쪽의 여진족과 함께 남쪽의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하여 왜관은 부산지역에 다시 개설된다.

1601년 절영도에 임시 왜관이 설치되고, 1607년 두모포(현 부산시 동구청 중심의 1만평으로 현재의 고관-필자)에 공식적인 왜관이 다시 설치된다. 그러나 이곳은 입지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좁아서, 대마번은 장기간에 걸쳐 조선 조정에 이건을 요청한다. 그 결과 두모포왜관을 1673년 초량항(부산시 중구의 용두산 주변-필자)으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된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의 왜관이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對馬州의 差倭가 아직도 釜山館에 머물고 있으면서 館을 옮겨 달라고 강력하게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차왜 등이, 청한 바를 굳게 막아버린 우리 조정의 書啓를 보고는 성을 내고 꺾쩍 뛰면서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行具를 준비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기색이 있었는데도, 조정에서는 역시 금지하지 않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차왜 등은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는 接慰官趙師錫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비록 多大·草梁 등의 浦에라도 옮기도록 허락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니, 사색이 이 말을 조정에 아뢰었다. 조정의 의논이 熊川은 결코 허락할 수 없고 草梁은 허락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상이 비로소 허락해 주라고 명하고 차왜로 하여금 스스로 多大·牧場·草梁 중 한 곳을 택하도록 하여 뒷말이 없도록 하였다. 차왜가 草梁項으로 옮기기를 원하자 허락하였다.¹⁹⁾

대마번의 왜관 이건 요청에 대해 조선 조정은 多大(현 다대포), 牧場(현 영도), 草梁 중 택하게 하여 草梁項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 『현종실록』 현종 14(1673)년 10월 19일 「왜관의 초량항으로의 이전을 허락하다」.

그리하여 두모포의 왜관은 약 70년 만에 초량으로 이관되었다.

임진왜란 후, 새롭게 만들어진 두모포왜관은 그 운영에서 삼포왜관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조선과 일본 양측은 전과 다른 엄격한 규칙을 세워 왜관의 운영에 임했다. 조선은 1609년 기유약조²⁰⁾를 통해 일본인과 물품의 출입을 제한하여 전과 같이 왜관에서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고, 일본은 왜관 내 교역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대마번주인 宗家에게 일임하여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또한 館守라는 직책을 새롭게 만들어 왜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관리와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러한 규약은 이관된 초량왜관에서도 그대로 지켜졌다.

이건이 결정되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678년 4월 14일, 館守 平田所左衛門을 비롯한 총 인원 454명의 일본인이 수문을 통해 왜관 안으로 들어갔다.²¹⁾ 館守 이하 대마도의 관리를 비롯하여 하층 노동자, 뱃사람, 요리사, 상인까지 모두 공적인 업무를 위해 대마도에서 발행하는 표찰을 소지한 사람들이었다. 표찰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직책별로 매수가 정해져 있었다. 이들은 가족을 동반하거나 특히 아내나 딸 등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없었는데 그 때문에 거주는 가능하였으나 영주는 불가하였다.²²⁾ 이러한 점 또한 삼포의 왜관에서와는 다른 차이점이다.

표찰을 받아 왜관으로 들어오는 이들 중에는 東向寺僧이라는 승려도 있었다. 이 승려를 조선의 기록에서는 書僧이라 하였고, 그들은 왜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법요라든가 일상적인 불사에 임하는 것 외에도 조선과 서로 주고받는 외교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외교업무를 맡고 있었다.²³⁾ 東向寺는 두모포왜관 시절부터 있었던 유일한 절로 임제종 계열의 절로 알려져 있다. 부산포왜관의 절이 총 4개, 승려가 7명이었던 것과 달리 두모포와 초량왜관에는 절이 1개였다는

20) 기유약조 주요 전문 정리 : 제3조 대마도의 세건선은 20척인데 그 가운데 특송선 3척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 배를 과견할 때는 모두 대마도가 발행하는 文引을 받아서 올 것. 제9조 대마도주에게 전례에 따라 도서를 발급함. 견본을 종이에 찍어서 예조와 교서관에 보관하고 부산포에도 비치해 둬. 제10조 문인이 없는 자, 그리고 부산포를 거치지 않은 자는 적으로 간주하여 죄를 물을 것. 기유약조는 개항 전까지 유지되었음.

(다시로 가즈이, 『왜관』, 정성일 역, 논형, 2005년, pp.31-32에서 정리.)

21) 다시로 가즈이의 전게서, p.89.

22) 다시로 가즈이의 전게서, p.175.

23) 다시로 가즈이의 전게서, p.46.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도쿠가와 막부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黒衣의 宰相(승려 신분이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필자)이라고 불렸던 임제종 승려 崇傳은 1608년 이후부터 徳川家康의 자문을 받으며 公家諸法度, 武家諸法度, 외교 문서의 작성, 사원 통제, 기독교 금제 등 도쿠가와 막부의 중추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임제종과 도쿠가와 막부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出島를 제외한 유일한 대외무역창구였던 두모포와 초량왜관에 임제종 계열의 절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²⁴⁾

그리고 삼포왜관의 절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중 추측만 하였던 神社의 존재가 초량왜관부터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초량왜관 내부의 건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 『宗家と朝鮮』에 따르면 왜관 내에는 金刀比羅神社, 辨天社, 稻荷神社가 있었으며, 龍尾山에는 加藤神社가 牧島(현재의 영도)에는 朝比奈神社가 각각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초량왜관의 내부를 그려둔 지도에서는 왜관의 중앙에 위치한 館守家の 주변에서 神社 및 鳥居 기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초량왜관 내 神社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초량왜관 내 神社의 위치와 명칭

본 절에서는 초량왜관의 내부를 그린 6장의 지도²⁵⁾와 초량왜관 개관 당시 건물에 대한 기록이 있는 『宗家と朝鮮』, 龍頭山神社²⁶⁾의 社務所에서 1936년에 발행한 『龍頭山神社史料』²⁷⁾를 통하여 神社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필자가 확인한 지도는 1678년 7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釜山和館竣工圖」, 1783년 「倭館圖」, 조선후기의 「草梁倭館繪圖」, 19세기 말의 「倭館圖」와 「釜山窯圖」 그리고 1886년의 「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 이렇게 모두 6장이다. 이중 변박이 그린 「倭館圖」를 제외하면 모두 작자미상이다. ²⁸⁾

24) 야스마루 요시오의 전게서, p.43에서 정리.

25) 초량왜관의 지도는 지면의 한계에 따라 鳥居와 神社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6) 부산일본인거류지의 재부산일본인들에 의해 초량왜관 시기부터 있어왔던 金刀比羅神社가 1899년 龍頭山神社로 개칭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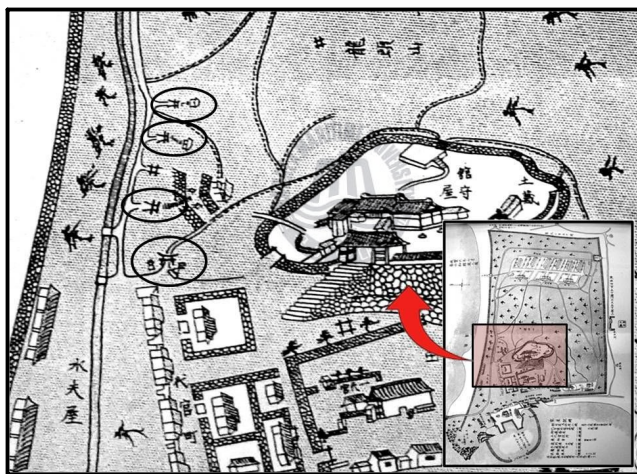
27) 山川鶴市, 『龍頭山神社史料』, 龍頭山神社社務所, 1936.

<그림 1> 1678년의 「釜山和館竣工圖」를 살펴보면 지도 중앙에 석벽으로 둘러싸인 ‘館守屋’이 눈에 띈다. 館守屋의 왼편에 총 4개의 鳥居가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鳥居는 그 뒤편의 건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건물들이 神社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위쪽에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鳥居는 각각 그 뒤편 건물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鳥居는 석단 위에 지어진 한 건물로 이어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중 네 번째 鳥居는 마을을 향하고 있으며 좌우에 석등으로 보이는 것이 그려져 있다.

「釜山和館竣工圖」에서는 鳥居의 존재를 통해 초량왜관에 神社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지도에 담긴 정보로는 神社의 명칭까지 알 수는 없었다.

<그림 1> 「釜山和館竣工圖」(1678년)



(출전 : 高矯章之助·中村金城 編, 『韓國併合史研究資料23 ①宗家と朝鮮·②朝鮮風俗畫報』, 龍溪書社, 1996 복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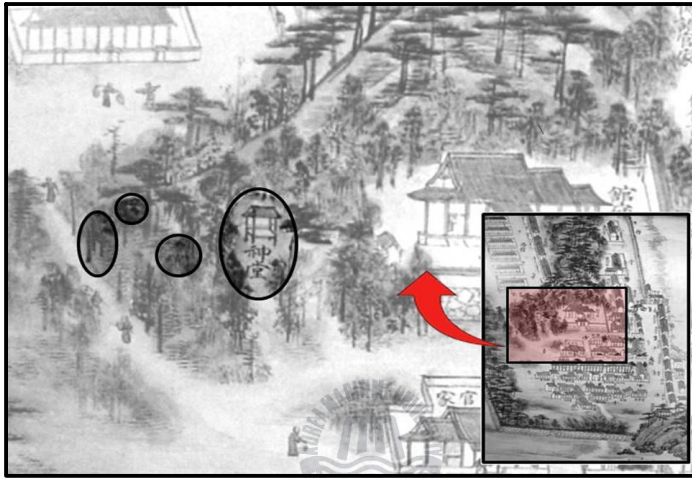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2> 1783년 변박이 그린 「倭館圖」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지도에서는 「釜山和館竣工圖」에서 ‘館守屋’이라고 표기된 곳이 ‘館守家’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위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에

28) 「釜山和館竣工圖」는 『宗家と朝鮮』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이고 나머지는 2008년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釜山古地圖』에서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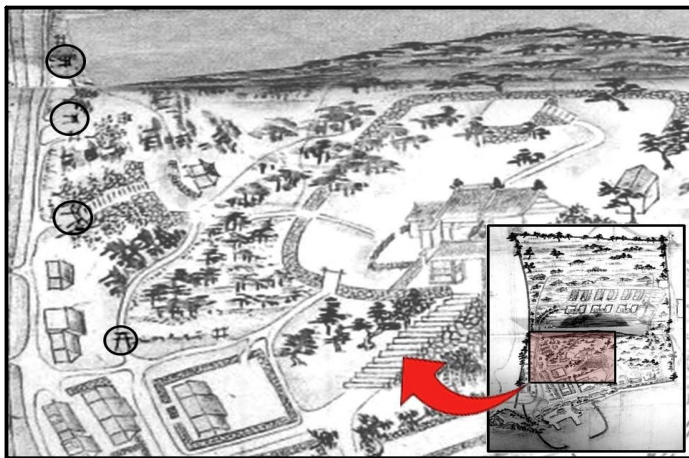
서도 鳥居는 館守家の 左邊에서 확인되지만, 단 1개만 보인다. 특이한 점은 그 1개의 토리가 붉은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붉은색 鳥居를 중심으로 양편에는 작은 붉은색 건물이 있다. 붉은색 건물의 뒤편에는 ‘神堂’이라고 표기된 건물이 보인다. 이것은 그 위치로 보아 「釜山和館竣工圖」에서 확인한 석단 위에 지어진 神社를 나타내는 것 같다.

<그림 2> 변박의 「倭館圖」(1783년)



(출전 :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p.226-227.)

<그림 3> 「草梁倭館繪圖」(조선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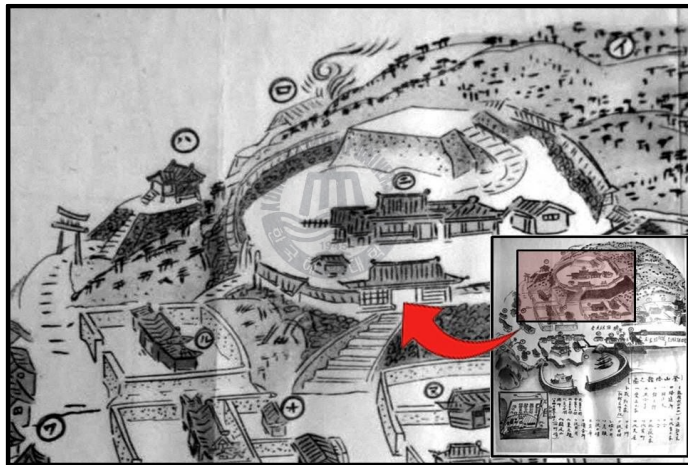


(출전 :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p.230-231.)

조선후기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그림 3>의 「草梁倭館繪圖」에서도 앞의 두 지도와 유사한 곳에서 鳥居가 확인된다. 이 지도에도 총 4개의 鳥居가 있으며, 그 위치는 「釜山和館竣工圖」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館守家 옆 석단 위에 지어진 건물도 앞의 지도들에서 확인된 건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19세기 말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그림 4> 「倭館圖」에는 각 건물마다 기호가 붙어있고 지도 하단에 기호 마다 건물명을 표기하고 있다. 앞의 지도에서 ‘館守屋’ 또는 ‘館守家’라고 표기되었던 건물이 여기서는 ‘館守館’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왼편에는 1개의 큰 鳥居가 있다. 그 뒤로는 석단과 계단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보인다. 이 건물의 기호는 ‘ハ’이며 건물명은 ‘辨才天’이라고 적혀 있다.

<그림 4> 「倭館圖」(19세기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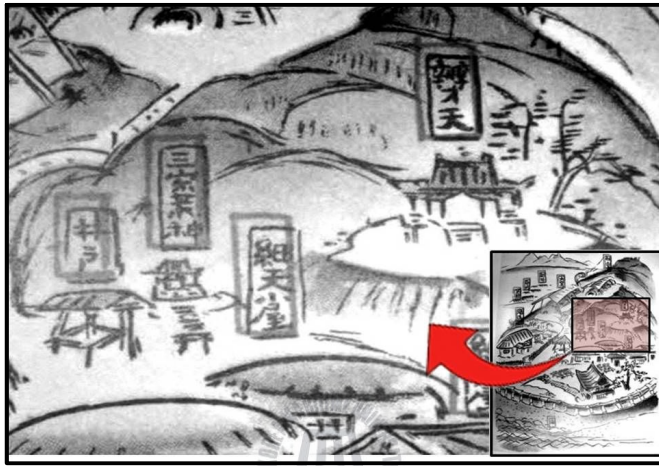


(출전 :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236.)

<그림 5> 「釜山窯圖」는 왜관 내의 가마와 그 주변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 지도상에서 館守家로 보이는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단, 지도의 우측 중앙에 ‘辨才天’이라고 적혀 있는 건물이 보인다. 건물의 명칭으로 보아, <그림 4>에서 확인한 건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의 여러 지도에서 확인한 館守家の 왼편에 있으며 석단 위에 만들어진 건물은 辨才天神社라고 생각한다. 辨才天의 왼쪽에 鳥居가 하나 보인다. 그 뒤의 작은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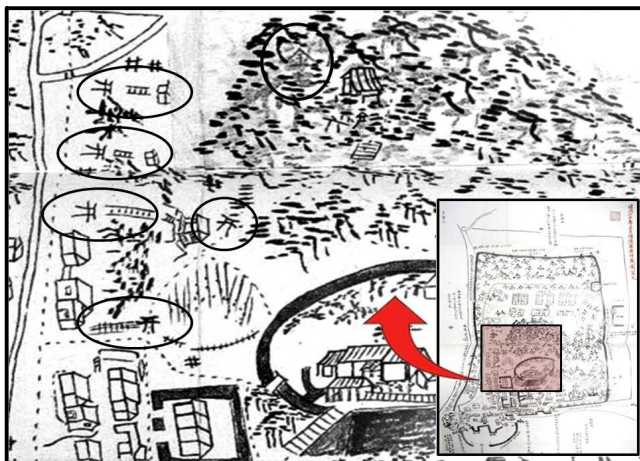
에 ‘三窠神’라고 보이는 글자 적혀 있으나,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鳥居가 보이고, 건물명에 ‘神’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물도 神社라고 생각된다. 이 三窠神神社의 왼편에는 ‘井戶’라고 표기되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우물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지도에서 ‘井’과 같은 기호가 있었던 자리는 우물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5> 「釜山窠圖」(19세기 말)



(출전 :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237.)

<그림 6> 「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1886년)



(출전 :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p228-229.)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도는 <그림 6> 1886년의 「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이다. 이 지도에서는 총 5개의 鳥居가 확인된다. 4개의 위치는 앞서 살펴본 지도들에서 확인된 위치와 같고, 나머지 1개는 辨才天神社의 바로 뒤에 있다. 辨才天神社 뒤편의 鳥居에서 시작되는 길이 산²⁹⁾의 정상에 있는 건물까지 이어져 있다. 그 건물의 왼편에는 붉은색으로 ‘金’자가 적혀있는데, 龍頭山 정상에 있는 이 건물은 다른 지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건물도 다른 神社들과 마찬가지로 鳥居와 이어지는 길의 끝에 있는 것으로 보아 神社라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6장의 초량왜관 지도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지도는 만들어진 목적과 시기 등이 다르지만, 神社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확인된 神社는 모두 5개였으며³⁰⁾, 지도상에서 神社는 館守家を 중심으로 그 왼편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다. 이 5개의 神社들 중 6장의 초량왜관의 지도를 통해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辨才天神社와 三窠神社였다. 명칭을 알 수 없었던 3개의 神社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20년 京城에서 발행된 『宗家と朝鮮』은 변호사 高矯章之助가 백작 宗重望과의 친분을 통해 宗家の 系譜를 열람한 것을 계기로 적은 책이다. 이 책은 宗家の 1세 宗知宗부터 宗重望에 이르기까지 750년간의 계보와 ‘對馬와 朝鮮과의 관계’, ‘明治維新 前後와 宗家’, ‘和館設置와 그 經營’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宗家と朝鮮』에 따르면 초량왜관은 1675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678년 7월에 이르러 낙성되었다고 한다.³¹⁾ 초량왜관의 가옥 중에는 大廳이라 불리는 몇 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선에서 건축한 것이라고 하며³²⁾ 그 외 다수의 가옥은 일본식 건축물이었다고 한다. 『宗家と朝鮮』에는 그 일본식 건물들의 명칭과 간단한 설명이 표기되어 있다. 그 중, 5개의 神社에 대한 기록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왜관 내에는 3개의 神社가 있었으며 그 명칭은 金比羅神社, 辨才天, 稻荷神社라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神社는 龍尾山³³⁾의 加

29) 초량왜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산은 龍頭山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전에는 松峴山 또는 中山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30) 辨才天神社(변박의 그림에서는 神堂)와 작은 鳥居 뒤편에 있던 두 건물, 三窠神社, 그리고 龍頭山 정상의 건물이다.

31) 高矯章之助, 『宗家と朝鮮』、北内印刷所、1920、p.94.

32) 高矯章之助의 전거서, p.95.

藤神社와 牧島(현재의 영도)에 있었던 朝比奈神社라고 한다.³⁴⁾ 초량왜관의 지도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지만, 龍尾山과 牧島에도 神社가 있었다는 것을 『宗家と朝鮮』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龍頭山神社 社務所에서 1936년, 龍頭山神社가 國幣小社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여 발행한 『龍頭山神社史料』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龍頭山神社史料』의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메이지시대 거류민들의 神社 정비에 대한 회의 기록이다. 1880년을 시작으로 부산 일본인거류지 내의 神社에 대한 정비가 시작된다. 이는 1877년, 초량왜관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 일본인거류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 神社들이 관리되지 못하고 낡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⁵⁾ 이때 주로 언급되는 神社는 龍頭山の 金刀比羅神社, 辨天社와 龍尾山の 加藤神社였다.³⁶⁾ 辨才天神社는 辨天社라고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龍尾山에 있었던 神社에 대해 1892년 11월 11일의 「加藤神社物品盜難届」에서는 加藤神社라고 적고 있으며, 1900년 1월 4일의 「玉垂神社(龍尾山鎮坐)改號の件伺」에서는 玉垂神社라고 적고 있다. 1900년 이전까지는 龍尾山에 있던 神社를 玉垂神社 또는 加藤神社라고 불렀던 것 같다. 그리고 龍頭山에는 金刀比羅神社, 辨天社 외에도 東稻荷神社와 西稻荷神社가 있었다고 한다.³⁷⁾

『宗家と朝鮮』과 『龍頭山神社史料』를 통해 초량왜관에는 龍頭山을 중심으로 金刀比羅神社, 辨天社, 稻荷神社(東·西)가 있었으며 龍尾山에는 加藤神社(혹은 玉垂神社)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6장의 초량왜관 지도를 통해 확인된 神社 모두 5곳이었으나 명칭을 확인 할 수 없었던 神社가 총 3개로 하나는 龍頭山 정상, 나머지 둘은 辨天社의 주위에 있는 것이었다. 龍頭山 정상에 神社가 확인 된 것은 1886년의 「釜山浦草梁和館大繪圖」에서다. 이 神社는 그 옆에

33) 龍頭山の 남동쪽에 있는 산으로 초량왜관 시절에는 呼崎山, 東山이라고도 불렀다.

34) 高矯章之助의 전게서, p.97.

(朝比奈神社의 위치에 대한 기술은 『宗家と朝鮮』 외에도 『龍頭山神社史料』와 『釜山府史原稿』에서도 확인이 되나,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35) 山川鵜市の 전게서, 「9. 各神社修繕費ニ關スル件願」, p.7.

36) 山川鵜市の 전게서, 「11. 辨天社ニ神饌所建次ノ件願」, 「13. 金刀比羅神社改建並辨天社修繕等ニツキ代理委員 選舉ノ件通知」, 「15. 金刀比羅神社改建ニ關スル件願」, 「24. 加藤神社修繕費支出之件」 등.

37) 山川鵜市の 전게서, 「47. 龍頭山神社等ノ御由緒及明細書(明治40年)附敬神會沿革」, pp.58-62.

붉은 글씨로 ‘金’이라는 한자가 적혀있었다는 점과 ‘延寶年間に 對馬의 領主 宗義眞이 龍頭山 위에 4尺4方의 石造로된 小祠를 축조하고 日韓 通商船의 安全을 빌며 金刀比羅神社를 奉祝했다.’³⁸⁾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金刀比羅神社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辨天社 주위의 神社는 1783년 변박의 「倭館圖」에서 붉은색 鳥居의 뒤편에 붉은색의 건물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붉은색 鳥居는 본래 여우상과 함께 稻荷神社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辨天社 주위에 있던 작은 규모의 두 건물은 각각 東稻荷神社와 西稻荷神社라고 생각된다.

龍尾山の 神社인 加藤神社(혹은 玉垂神社)에 대해서는 초량왜관 내부 지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宗家と朝鮮』과 『龍頭山神社史料』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두 문헌에서는 加藤神社(혹은 玉垂神社)가 만들어진 시기가 金刀比羅神社·辨天社와 같은 延寶6년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6장의 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기원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金刀比羅神社 역시 같다. 각 神社의 기원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1차 사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이상으로 초량왜관에 있었던 神社에 대해 그 위치와 명칭에 대해 알아보았다. 龍頭山 주위에서 확인한 金刀比羅神社, 辨天社, 稻荷神社(東·西)는 모두 재물 및 향해의 안전과 관련된 신을 모시는 神社로써 당시 초량왜관에 거주하고 있던 대마도인들의 신앙습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초량왜관이 부산일본인거류지로 바뀌게 되며 진행되는 神社들의 정비과정에 대해 거류민들(특히 대마도 출신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8) 山川鶴市の 전계서, 「48. 神社々格附與之義=付稟申」, p.73.

Ⅲ. 개항기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神社

1876년 「朝日修好條規」에 의해 부산은 개항을 경험하게 된다. 부산의 개항은 초량왜관의 일본인사회에도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1877년 초량왜관이 폐쇄되고 그 부지에는 일본인거류지가 만들어졌다. 대마도인들만이 거주가 가능했던 두모포·초량왜관과는 다르게 일본인거류지에는 일본 각지에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든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개항을 통한 일본인사회의 변모는 1868년부터 메이지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神社·神道정책의 영향과 함께 초량왜관 시절부터 있어왔던 내부의 神社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일본인사회의 변화가 그 내부의 神社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거류민들(특히 대마도 출신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본 거류민사회의 형성과 운영

1876년의 「朝日修好條規」에 의한 부산의 개항 이후, 1877년, 동래부사 洪祐昌과 일본 관리관 近藤眞鋤의 調印에 따라 조선과 일본 간의 교역 창구였던 초량왜관이 폐쇄되고 그 자리는 일본인거류지로 탈바꿈 된다.

일본 메이지정부의 일본인거류지 설치에 대한 준비는 이미 부산의 개항 이전인 1872년에 일본 외무성이 초량왜관을 ‘접수’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72년 9월, 외무성에서 파견된 花房義質은 왜관개혁을 목적으로 관리를 새롭게 임명하고 불필요한 관리와 상인에게는 대마도로 철수를 명했다.³⁹⁾ 그리하여 보통 400-500명이 상주하였던 11만여 평의 초량왜관에는 80여 명만이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877년 일본인거류지가 만들어지고, 1878년에는 일본정부가 도항에 따른 여권의 발행 장소를 종래의 개항장뿐만 아니라, 下關, 대마도의 嚴原, 福岡, 鹿兒島 등으로 확대⁴⁰⁾하는 등의 정책에 따라 재부산일본인의 수는 급증하게 되어 한일병탄이 있던 1910년, 부산지역의 일본인 수는 2만 명을 넘게 되었다.

39) 沈箕載, 「메이지 5년 하나후사(花房)일행의 조선 파견」, 『東洋學 第34輯』,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3.8.

40)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釜山』, 桜井書店, 2007, p.22.

일본 외무성은 왜관의 ‘접수’ 이후 그곳의 관리를 위해 정부기관과 거류민 자치기구를 만들었다. 이에 1874년 釜山管理官廳을 시작으로 1880년 釜山日本領事館, 1906년 釜山理事廳이 각각 설치되었다. 한일병탄 이후 1910년 10월, 釜山府廳이 설치되면서 釜山理事廳은 폐지된다. 이와 같은 기관들의 주요 업무는 자치기구의 감독, 일본인의 보호와 외교 교섭 외에도 영업, 토지, 가옥, 인사, 교육, 경찰, 위생, 병원, 선박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표 2>는 1876년부터 1904년까지의 관리기관 및 관리관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부산일본인거류지 관리기관 및 관리관의 변화(1876-1904년)

年次	官廳名	官名	氏名
1876	管理官廳	管理官	近藤眞鋤
1878	上同	上同	山之成祐長
上同	上同	上同	副田節
1879	上同	上同	前田獻吉
1880	領事館	領事	近藤眞鋤
1882	上同	上同	副田節
上同	總領事館	總領事	前田獻吉
1887	領事館	領事	室田義文
1890	上同	上同	立石革
1892	總領事館	總領事	室田義文
1895	領事館	1等領事	加藤增雄
1896	上同	上同	秋月左都夫
上同	上同	上同	伊集院彦吉
1899	上同	領事	能勢辰五郎
1901	上同	上同	幣原喜重郎
1904	上同	上同	有吉明

(참조 : 大曲美太郎, 『釜山の古蹟과 遺物』, 김의환 역, 아성출판사, 1969, p.71.)

일본인 자치기구는 1873년 당시 거류민 중에서 保長 1명을 천거하여 그가 관민 사이에서 자치사항에 관한 수고를 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1876년 거류지⁴¹⁾에 회의소가 설치되었고, 자치대표인 用番이 管理官의 감독

41) 1876년의 거류지라는 것은 조선 측에서는 여전히 초량왜관일 것이다.

하에 거류지에 관한 공공적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1879년 각 町에서 1명씩의 保長을 선출하여 거류지의 공공사업 및 公費 등을 논의케 하였다. 그리고 保長互選에 의해 保長頭取 1명을 정하여 이를 거류민의 대표로 하는 동시에 종래의 회의소를 保長頭取役所라고 개칭하였다. 1881년 保長頭取役所를 總代役所로 또 保長頭取를 保長總代로 개칭하였다.

이후 1891년 5월 領事는 在釜山帝國居留地規則을 제정하여 居留地會 및 居留人民總代를 둔다. 居留地會 및 居留人民總代는 領事の 위임을 받아 居留地내의 諸般 사무를 의정처리하고 또 거류민으로 하여금 공공의 營造物과 거류지재산을 공유하는 권리와 거류지의 부담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졌다. 또 거류민은 이 규칙에 따라 거류지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선거에 따라 선출되는 거류지회의 의원수는 20명이었으며, 이들이 거류지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居留地費로써 支辨할 사항.

본 항의 概目은 會議費, 居留地役長費, 道路 橋梁 溝渠費, 水道費, 井戶費, 墓地費, 便所 및 塵芥場所費, 學校費, 病院費, 神社費, 公園費, 衛生費, 常置委員 및 議員慰勞金 등.

2. 거류지비의 세입세출예산 및 예산 외 지출의 건.

3. 결산보고의 認定.

4. 거류지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5. 공공영조물 또는 거류지재산의 관리법 및 처분에 관한 것.

1894년 居留人民總代가 居留民總代로 바뀌었다. 1901년에는 總代役所를 居留地役所로, 居留民總代를 居留民長으로 개칭하였으며, 1905년 居留地役所를 居留民役所로 고쳤다.

1906년 7월 통감부령 제21호 居留民團法施行規則과 동년 8월 2일 통감부고시 제76호에 의해 居留民團이 설립된다. 이와 같이 설립된 居留民團은 法人으로서 官의 감독을 받아 법령 또는 그 범위 내에서 공공사무 및 법령 조약 또는 관례에 의해 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居留民團에는 이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행정사무를 담임하는 民長과 居留民會가 있었다. 統監이 民長

의 任免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종래 公選이었던 民長은 官選이 되었다. 1914년 1월 府制실시 이후 居留民團의 사무는 釜山府로 인계되었다.⁴²⁾ 아래의 <표 3>은 1876년부터 1913년까지 부산일본인거류지의 자치기구 및 기구대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부산일본인거류지 자치기관 및 자치대표의 변화(1876-1913년)

年次	公署名	職名	氏名
1876	會議所	用番	眞島仙藏
1878	上同	上同	阿比留護助
1879	保長頭取役所	保長頭取	吉副喜八郎
1880	上同	上同	阿比留護助
1881	總代役所	保長總代	上同
1882	上同	居留人民總代	上同
1894	上同	居留民總代	金井俊行
1896	上同	上同	佐原純一
1899	上同	上同	太田秀次郎
1901	居留地役所	居留民長	上同
1904	居留民役所	上同	石原半右衛門
1906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民長	上同
1910	上同	上同	粟屋端一
1912	上同	上同	島田歸
1913	上同	上同	大池忠助

(참조 : 大曲美太郎, 『釜山の古蹟과 遺物』, 김의환 역, 아성출판사, 1969, p.75.)

자치기구에서는 거류민들에게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여 그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으로 거류지내부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1900년부터 1904년까지 5년간 거류지세입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항목으로는 地課金, 家屋課金, 營業課金, 船車課金, 船舶衛生費, 館外地所公証手数料, 小學校授業料, 病院收入, 通船營業特別課金, 証明手数料, 鑑札料, 魚市場課金, 雜種課金, 雜收入등이 있었다. 거류민들은 세목에 맞추어 일정한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때 그것을 거부할 시에는 1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영사에게 있었다

42) 大曲美太郎, 『釜山の古蹟과 遺物』, 김의환 역, 아성출판사, 1969, pp.72-75에서 정리.

고 한다. 43)

세출항목으로는 役所費, 會議費, 土木費, 教育費, 病院費, 衛生費, 避病院費, 水道費, 消防費, 傳染病予防費, 神社費, 公園費, 墓地費 등이 확인된다.44) 1900년부터 1904년까지의 거류지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거류지의 공비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神社費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 일본인거류지에서는 1880년을 기점으로 거류지 내 낡은 상태로 방치되어있던 神社들을 정비하기 시작한다. 이때 필요한 경비는 거류지비와 거류민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는데 그 비율은 기부금이 더 높았다. 거류민들은 神社를 비롯한 거류지의 제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내는 기부금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였다.45)

다음에서는 거류지 내 神社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비되어 가는지에 대해 대마도 출신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43) 相澤仁助、『釜山港勢一斑』、日韓昌文社、1905年、p.15.

44) 相澤仁助의 전계서, pp.54-55.

45) 1899년 7월 1일, 『中外日報』, 「韓國布教一斑」.

2. 일본 거류민의 神社정비

1867년 10월 17일부로 명시된 神祇官의 재흥방침은 1868년 이후 메이지정부에 의해 실시될 ‘神道國教化政策’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太政官 포고에 의해 실시된 1868년 3월 28일의 ‘神佛判然令’과 1871년 5월의 ‘社格制度’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神佛判然令’에 따라 지방의 여러 神社에서는 佛敎色이 제거되었고, 社格制度의 제정에 따라 각 神社들은 정부로부터 社格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것에 상응하는 관리를 받게 되었다. 1876년의 ‘小祠廢併令’에 의해 지방의 소규모 神社 및 사당 등이 폐쇄 및 병합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총 20만 여개에 달했던 일본 전국의 神社는 1914년이 되어 약 12만 개로 감소되었다.

1880년을 기점으로 부산 일본인거류지에서도 神社의 정비가 시작된다. 초량왜관 시절의 神社들이 상업을 위해 오가던 상인들과 내부의 관원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것과 달리 1880년부터 神社의 관리는 거류민자치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神社의 운영 및 改保守에 필요한 자금은 거류지의 공과금 및 神社의 신앙자들이 낸 기부금으로 충당하게 되었다.⁴⁶⁾

1880년 9월 16일, 保長頭取心得 阿比留護助는 領事 近藤眞鋤에게 거류지의 각 神社의 상태를 보고하며 관리자가 필요함을 보고한다. 당시 거류지 내 神社의 상태는 잡초가 무성하고 불결했으며, 처마와 기와 그리고 神社의 문패 등이 파손되어 마치 폐사와 같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保長集會에서는 거류민 중 대마도의 嚴原 출신인 神職 永瀬永를 고용하여 각 神社의 祭典 및 청소 등을 맡기게 된다.⁴⁷⁾

이하에서는 거류지의 神社가 정비되는 과정에 대하여 ‘神社의 수리 및 신축’과 ‘祭神의 鎮坐’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神社의 수리 및 신축

1877년 초량왜관이 폐쇄되고, 그 자리에 일본인거류지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초량왜관 시기부터 있어왔던 神社들은 관리되지 못한 채 폐사와 같은

46) 釜山府, 『釜山府史原稿 1』, 민족문화사 영인본 제1권, 1938, p.331.

47) 山川鶴市の 전제서, 「9. 各神社修繕費ニ関スル件願」, p.7.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880년 9월 16일, 4尺 4方의 石造의 작은 神社였던 金刀比羅神社⁴⁸⁾는 거류민의 기부금 약 2,000엔을 들여 木造의 神殿을 갖추게 된다.⁴⁹⁾ 이를 시작으로 金刀比羅神社는 辨天社와 함께 거류지내에서 ‘公有神社’라고 불리며 정비되어 간다.⁵⁰⁾

神職 永瀬永은 金刀比羅神社의 拜殿과 辨天社의 지붕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 개건 및 수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總代役所에 건의한다. 두 神社의 개보수 사업은 다른 거류지의 사업과 비교할 때 규모가 컸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특별 위원의 선발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881년 11월 30일, 「金刀比羅神社改建並辨天社修繕에 대한 特志連中代理委員權限並選舉規則」이 만들어진다. 이 규칙은 제 1장의 ‘神社의 영선비는 신앙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이 사업은 草創⁵¹⁾의 사업인 만큼 특지인원 중에서 대리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등 과 제 2장의 ‘위원은 독지가 인원 중 5명을 선거 한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특지인원 중 금 3엔 이상의 기부금을 낸 25세 이상의 남자에 한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⁵²⁾

1882년 2월 1일 위 규칙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고 5명의 대리위원이 선정된다. 이때 3엔 이상의 기부금을 내고 선거에 참여한 인원은 三菱會社, 溝口慶治, 大倉商社, 遷有商社支店, 協同商會, 龜谷造次郎, 住友支店, 福田增兵衛, 第一國立銀行, 齊藤萬次郎, 池田組支店 외 총 50명이었다고 한다. <표 4>는 선거의 득표현황이다. ⁵³⁾

48) 山川鶴市の 전계서, 「40. 金毘羅大權現其他神社ノ額及棟札等」에 따르면 1822년 3월, 1組의 ‘石御社’ 金刀比羅神社에서 당시의 주민 12명이 渡海安全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47. 龍頭山神社等ノ御由緒及明細書(明治40年)附敬神會沿革」에서는 金刀比羅神社가 4尺4方의 石造 小祀였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49) 山川鶴市の 전계서, 「48. 神社々格附與之義ニ付稟申」, p.73.

50) 회의 내용에 따르면 公有神社 2개소의 제진 및 청소 인건비는 1개월에 3엔으로 정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자는 총대가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그리고 公有神社의 영선에 따르는 비용은 견적서를 통해 신청하여 거류민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있다.

(山川鶴市の 전계서, 「10. 共有神社祭典費等ニ関スル議案」, p.8.)

51) 절·神社 등의 창건을 말함.

52) 山川鶴市の 전계서, 「13.金刀比羅神社改建並辨天社修繕等ニツキ代理委員選舉ノ件通知」, pp.10-13.

53) 山川鶴市の 전계서, 「14. 代理委員當選者通知」, pp.13-15.

<표 4> 金刀比羅神社改建並辨天社修繕 대리위원 선거참가자 및 득표현황(1882년)

(※당선자는 20표 이상 득표자)

順位	名	得票	出身地
1	福田増兵衛	35	對馬 嚴原出身
2	横松清助	29	
3	齊藤萬次郎	29	
4	保家貞八	28	對馬 嚴原出身
5	郡金三郎	20	對馬 嚴原出身
6	龜谷造次郎	19	
7	協同社	13	
8	松本清太郎	12	
9	第一國立銀行	10	
10	本馬宇三郎	10	
11	三菱會社	9	
12	堀口組	7	
13	大倉組	6	
14	溝口慶治	6	
15	佐の但嘉	6	
16	平山善助	5	
17	富田重五郎	5	
18	河野助次郎	5	
19	桑田伴藏	4	
20	早田淺之助	4	
21	木村, 山田, 三村	3	

(자료: 龍頭山神社社務所, 『龍頭山神社史料』(1936), 「14. 代理委員當選者通知」 p.14.)

20표 이상을 얻어 당선된 5명의 출신지를 확인해본 결과, 그 중 3명의 출신지가 대마도의 嚴原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三菱會社, 大倉商社, 住友支店, 第一國立銀行과 같은 메이지정부에 유착하여 성장하고 있던 기업들이 당선자 명단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거류지의 神社가 정비됨에 있어서 대마도 출신자들이 가졌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앞서 대리위원 선거 규칙에서 언급된 대로 거류민들의 기부금

을 통해 진행되었다. 1882년 3월의 「金刀比羅神社改建寄附金收支精算表」에 따르면 大倉商會 이하 75명의 기부금으로 336엔이 조성되어, 목수의 일일고용 및 기타 비용으로 519엔 10전을 사용했다고 한다.⁵⁴⁾

金刀比羅神社와 辨天社를 중심으로 개건 및 수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무렵, 對馬親睦會會員 등이 발기인이 되어 영사관의 허락을 받아 1884년 10월 3일, 金刀比羅神社 주위에 2間 4方의 弘國神社⁵⁵⁾遙拜所를 건축하고 遙拜式을 舉行했다.⁵⁶⁾ 이러한 사실은 거류지 내 神社에 관한 사업이 거류민자치기구를 통해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882년부터 시작된 金刀比羅神社와 辨天社의 수선 및 개건 사업의 필요성은 거류민들 사이에서 대리위원 선거 등과 같은 여러 움직임을 만들었으나, 본격적인 공사의 진행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 거류지 내 神社의 수선 및 개건 사업에 관한 건의가 있는 후부터 불경기가 계속되어 사업이 중지되고 말았기 때문이다.⁵⁷⁾ 그래서 1887년 2월 9일, 永瀨永은 목수 三山松助, 三山嘉兵衛가 제출한 辨天社의 수선 견적서를 첨부하여 다시 總代 阿比留護助에게 辨天社의 수선 및 신축을 건의한다. 견적서에 따르면 辨天社의 수선 및 社務所의 건축에 드는 총 비용이 94엔 51전이며, 그 중 辨天社의 수선비로 45엔 10전, 社務所의 건축비로 49엔 41전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⁵⁸⁾

永瀨永로부터 이와 같은 의뢰를 받은 阿比留護助는 같은 해 4월 18일, 새로 부임한 領事 室田義文에게 辨天社의 수선 및 社務所의 신축 인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1896년 4월 6일, 永瀨永이 阿比留護助에게 金刀比羅神社의 상황이 辨

54) 같은 해 후반기의 公有神社비 수지정산의 방법에 따르면 公有神社비 27엔 중 12엔을 제진 집행 및 청소 그리고 담당자의 급여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엔은 수선의 예비비용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공사에 드는 비용이 모아진 기부금보다 많았을 경우에는 남겨둔 예비비용 등으로 충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山川鷓市の 전계서, 「17. 明治15年度後半期收支方法(決定)」, p.16.

55) 弘國神社는 임진왜란 때 小西行長の 휘하에서 조선침략에 앞장섰으며, 전쟁 후에는 도쿠가와 막부의 명에 따라 조선과의 화친에 힘썼던 宗義智를 모시는 神社이다. 弘國大神의 칭호는 祭神의 후예인 對馬의 舊國主 從二位 伯爵 宗重正가 만든 것이다.

56) 원 사료에서는 弘國神社遙拜所의 위치가 ‘龍頭山神社繪馬堂’ 자리라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金刀比羅神社가 1900년 이후부터는 龍頭山神社로 불리는 점으로 볼 때, 그 위치는 金刀比羅神社의 주위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山川鷓市の 전계서, 「47. 龍頭山神社等ノ御由緒及明細書(明治40年)附敬神會沿革」, p.67.)

57) 山川鷓市の 전계서, 「20. 辨天社修繕並社務所建次ニ関スル件伺」, pp.19-20.

58) 山川鷓市の 전계서, 「19. 辨天社修繕見積書」, pp.18-19.

天社와 같음을 전달한다. 당시 金刀比羅神社는 社殿의 지붕 주위가 파손이 심해 비바람에 그대로 둘 경우 큰 파손으로 이어져 수리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었다고 한다.⁵⁹⁾ 이에 1897년 10월, 永瀨永을 비롯한 神社건축위원 福田増兵衛, 矢橋寛一郎, 保家貞八, 黒岩邦太郎, 坂田與市 그리고 居留民總代 佐原純一等은 領事 伊集院彦吉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宗重正⁶⁰⁾과 기타 거류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金刀比羅神社의 개축사업을 실시한다.⁶¹⁾

이 때 金刀比羅神社 개건 사업을 위한 10,000여 엔의 자금이 모였다. 그 가운데 8,000여 엔은 거류민들의 기부금이었고 나머지 2,000여 엔은 거류지에서 보조되었다고 한다. 거류지 神社의 수선 및 개건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이 거류민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1899년 7월 1일자 『中外日報』, 「韓國布教一斑」 기사 내용에 따르면 거류민 중에는 거류지의 神社 또는 절을 짓는데 사용되도록 내는 기부금을 부담스러워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다.

…龍頭山 정상에는 金毘羅神社가 있고, 금번에 거류민이 수만금을 들여 신전을 신축한다. 그 중간에는 辨天堂이 있다. 이 경비(신축에 들어갈 경비-필자)는 거류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때문에 거류민은 神社와 절의 신축에 필요한 기부금에 지쳐있다. …

1898년 9월 7일, 助役 阿比留護助와 技手 土肥仲, 神職 永瀨永, 大工 倉橋久吉은 金刀比羅神社의 개축을 실시할 社殿과 拜殿, 玉垣⁶²⁾, 社務所 등의 장소를 확인토록 의뢰한다. 이렇게 해서 領事 伊集院彦吉와 居留民總代 佐原純一, 神社건축위원 福田増兵衛 외 4인 그리고 居留地議長 古藤昇一郎, 居留地役長技手 土肥仲, 神職 永瀨永, 大工 倉橋久吉은 다음 날인 9월 8일에 金刀比羅神社

59) 山川鶴市の 전게서, 「25. 金比羅神社々殿修理願」, p.23.

60) 대마도의 마지막 번주로 본명은 宗義達였으나 유신 이후에 宗重正으로 개명하였다. 1868년 신정부로부터 조선과의 외교를 예전대로 위임 받게 되었고, 1869년 판적봉환 후 嚴原의 번지사가 되었다.. 폐번치현 후에는 외부대승으로 취임하였고 1884년에는 백작이 되었다.

61) 金刀比羅神社는 1898년 동안 잠시 居留地神社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나, 1899년 1월 27일 神社의 명칭에 관한 회의가 있고 난 뒤부터 龍頭山神社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내용의 혼동을 막고자 1899년 전까지는 명칭을 金刀比羅神社로 바꾸어 적는다.

62) 다마가키: 神社의 울타리를 말함.

의 개축지를 확인한다.⁶³⁾

神社건축위원회는 金刀比羅神社의 개축 중, 1899년 1월 27일에 龍頭山神社로 社號를 개칭하기로 결정하고, 7월 18일에는 龍頭山神社의 개축을 기념하는 기념비의 설립을 결정한다.⁶⁴⁾

한편 거류지의 龍尾山에 있던 加藤神社에 1891년 2월 7일과 8일 사이 도둑이 들었다. 加藤神社 역시 다른 神社들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永瀨永은 神社의 내부를 매일 순찰하였는데, 다음 해 11월 11일 加藤神社의 신전 북측에서 加藤神社의 棟札 1매, 신전의 全般戶 2매, 신전의 腰壁 2매, 배전 북쪽의 中敷小障子⁶⁵⁾가 겹쳐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상황에 대해 永瀨永은 總代 阿比留護助에게 보고하였고, 사건의 용의자로 조선인을 지목하고 있다.⁶⁶⁾

加藤神社는 흠으로 된 외벽으로 인해 비바람이 불면 매번 파손이 심하였고, 1895년 현재에는 탄약보관소(彈藥置場)로 병참부에서 차용 중이었기 때문에 수선이 긴급하였다. 그리하여 9엔 97전을 들여 神社의 외벽을 板壁으로 신설하는 등의 수선을 한다.⁶⁷⁾ 이후 1900년 1월 4일, 永瀨永은 神社의 社號를 玉垂神社(加藤神社)⁶⁸⁾에서 龍尾山神社로 개칭하고 祭典 및 기타 모든 사항을 龍頭山神社와 같은 날에 집행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居留民總代 佐原純一에게 전달한다. 같은 해 1월 20일, 거류지상설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永瀨永의 건의사항이 그대로 결정된다.

龍尾山神社는 일부 수선과 개칭을 통해 龍頭山神社와 함께 거류지를 대표하는 神社가 되었지만, 얼마 후 노후로 인해 기둥과 마룻대가 기울게 되어 개건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에 敬神會⁶⁹⁾에서는 1905년 여름, 會長 矢橋寬一郎과

63) 山川鶴市の 전계서, 「27. 龍頭山神社改築ニ付地所見分等ノ件」, pp.25-26.

64) 山川鶴市の 전계서, 「31. 御社號ニ関スル神社建築委員意見」, p.29, 「35. 龍頭山神社改築 紀念碑建立ノ件決行」, p.32.

65) 중간에 까는 것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미닫이와 비슷하나 운두가 높고 문지방이 낮다.

66) 山川鶴市の 전계서, 「22. 加藤神社物品盜難届(明治25年)」, p.22.

67) 山川鶴市の 전계서, 「24. 加藤神社修繕費持出之件」, p.23.

68) 加藤神社는 龍尾山神社로 개칭되기 전까지는 玉垂神社라고도 불렀던 것 같다.

69) 1900년 10월. 神職 永瀨永, 矢橋寬一郎, 古藤昇一郎 3명이 창립인이 되고 阿比留護助, 福田 增兵衛, 阪田與一, 保家貞八, 黒岩邦太郎 등의 찬성을 얻어 龍頭山神社의 敬神會가 창립되었다. 초기 敬神會의 회장은 永瀨永이었으나 1900년 11월 永瀨永은 병으로 인해 회장직을 그

幹事古藤昇一郎 등이 대표가 되어 神社의 조영계획을 세우고, 民長 石原半右衛門과 협의 후 거류지회의 승낙을 얻어, 宗重正을 비롯하여 거류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5,500여 엔의 경비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공사는 1907년 3월에 기공되어 7월에 완료 되었다.

이 무렵 龍頭山神社도 개축공사를 마치고 부산을 대표하는 神社로 새롭게 태어났으나, 여전히 그 社格⁷⁰⁾은 無格社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1907년 1월 25일, 거류지 敬神會長 矢橋寛一郎과 敬神會幹事 古藤昇一郎 그리고 龍頭山·龍尾山神社의 神職인 從六位 平松義雄는 民長 石原半右衛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龍頭山神社의 社格昇格을 건의한다.

부산은 조선 중에서 일본과 가장 인연이 깊고, 가장 많은 수의 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龍頭山神社의 신들을-필자) 거류지의 産土神으로 삼고 있으며, 매년 4월 例祭日에는 영사관에서 (龍頭山神社에-필자)御幣物로 鏡餅⁷¹⁾를 獻饌한다. 부산에는 학교, 병원, 전등, 수도 등의 부족함 없이 갖추어 살고 있다. 당 神社는 동양에서 꼽히는 勝地이고 4만여 평에는 고목과 노송이 층만하며 1년의 社納도 상당하므로 관폐대사로 승격하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無格社로써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의 거류민들은 주야개탄하고 있다. 내지에서도 일만 이상의 마을에 상응하는 神社가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인연이 깊은 龍頭山神社가 관폐대사로 昇格仰出된다면, 우리 거류민에게 위안의 감정을 전해줄과 함께 官裁의 공명정대함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感泣) 점점 더 경신의 마음이 깊어질 것이다. 정치상으로도 韓民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이바지하게 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⁷²⁾

만두게 된다. 敬神會의 창립에 있어서도 永瀨永을 비롯하여 阿比留護助, 福田増兵衛, 保家貞八 등과 같은 대마도 출신자들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山川鶴市の 전게서, 「47. 龍頭山神社等ノ御由緒及明細書(明治40年)附敬神會沿革」, pp.70-71.)

70) 1871년 5월, 메이지政府는 太政官布告를 통해 官社, 諸社의 구별로 사격을 정했다. 官社는 官幣社(大, 中, 小)와 國幣社(大, 中, 小)로 나누어 神祈官의 관리를 받았고, 諸社는 府社, 藩社(폐번치현 후 縣社가 됨), 郷社로 구분하여 地方官의 소관이 되었다. 이어서 7월에는 郷社 定則이 제정되어 府縣社, 郷社, 村社의 순서대로 사격이 공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상의 사격을 부여받지 못한 神社는 無格社로 불리게 되었다.

(村上重良의 전게서, p.95.)

71) 가가미모치: 설 같은 때에 신불(神佛)에게 올리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동글납작한 찰떡.

72) 山川鶴市の 전게서, 「46. 釜山龍頭山鎮坐無格社龍頭山神社御昇格御願(明治40年)」, p.5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社格은 법적으로 일본국내(内地)에만 적용되는 제도였지만, 龍頭山神社는 그 특이한 역사와 함께 치외법권을 가진 거류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社格에 대한 논의는 병합이전부터 존재하였다.⁷³⁾ 그리하여 民長 石原半右衛門는 같은 해 5월 31일, 朝鮮統監 伊藤博文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龍頭山神社의 社格昇格을 건의한다.

… 매년 4월 21일 22일을 例祭日로 정해 당일은 민단역소를 비롯해 학교, 병원, 은행 기타 일반상가는 일을 쉬고 祝意를 표한다. 지금 거류지의 발전에 따라 神社에는 인적이 끊이지 않고 賽錢은 년 500엔 내외에 이른다.

龍頭山神社는 對馬領主 宗義眞이 本邦人에게 위안을 주는 수단으로서 奉祀시킨 이래 거류민의 崇敬이 나날이 두터워졌다. 本邦人으로서 커다란 정신상의 慰安을 주고 거류지 발전 상 적지 않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신영토 또는 보호국과 같은 토지에서 민심의 감화와 통일 상, 경신의 생각을 증진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이에 관폐대사에 상당하는 社格을 부여해줄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⁷⁴⁾

그러나 이와 같은 부산거류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다음 해인 1908년 9월 14일에 石原半右衛門는 재차 伊藤博文에게 관폐사에 상당하는 社格을 부여토록 건의한다. 이때 일본전국신직회에서 보낸 서류를 함께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2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1. 한국에서의 神社행정에 대해 당국은 신속히 적당한 제도를 설정하여 장래에 생겨날 유폐(가령, 내지에 있어서의 府縣社 이외의 神社에 대해 지금 정리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같은 것)를 미연에 예방할 것을 희망함.
2. 釜山 龍頭山神社는 지금 한국에 있는 神社 중 最古의 歷史를 가지며, 社殿 및 경내 등도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하므로 이에 相當한 御社格을 정해줘야만 지당하다고 생각함.⁷⁵⁾

73) 菅浩二、『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弘文堂、2004、pp. 172-173.

74) 山川鵜市の 전게서, 「48. 神社々格附與之義ニ付稟請」, pp.74.

75) 山川鵜市の 전게서, 「51. 龍頭山神社々格附與之義ニ付稟請(明治41年)附全國神職會決議」,

재부산일본인들은 거류지 내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일본전국신직회의 의견까지 동원하여 龍頭山神社의 사격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龍頭山神社가 국폐사의 社格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훨씬 이후인 1936년이 되어서다. 이는 1910년 한일병탄 이후, 조선에 만들어진 神社가 포섭해야 할 대상이 재조선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선의 실정에 맞는 神社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⁷⁶⁾

이때의 龍頭山神社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龍頭山神社에는 14평의 木造銅葺 神殿과 21평 2합 5작의 木造瓦葺 拜殿이 있었고 境內 건물로 4평의 神饌所와 20평 7합 5작의 木造瓦葺 社務所, 手洗所 2개가 있었다. 그리고 境內의 神社로 辨天神社와 稻荷神社가 있었다고 한다.⁷⁷⁾ 辨天社의 이름이 辨天神社로 바뀌었으며, 주위에 있었던 東·西稻荷神社는 稻荷神社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두 神社가 龍頭山神社의 내부로 편입되어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1910년 한일병탄을 앞둔 시점에서의 龍頭山神社는 이렇게 社格에 대해 승격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규모와 지위가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神職 永瀨永을 비롯한 대마도 출신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永瀨永은 1880년 거류지 내 神社의 관리를 맡게 되면서부터 1900년까지 神社들의 수선 및 개건 사업에 관하여 먼저 건의하며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이 거류민단체장을 거쳐 영사에게로 전달되면서 辨天社와 金刀比羅神社, 그리고 加藤神社의 정비가 시작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1896년, 金刀比羅神社의 개축과 함께 요구한 社務所의 신설은 향후 龍頭山神社의 社格昇格 요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기반을 제공하였다. 1897년 社格昇格의 내규를 살펴보면 社務所는 村社에 이르기까지 꼭 갖추어야 할 요소였기 때문이다.⁷⁸⁾

pp.78-80.

76)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靑野正明의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における國幣小社列格—「國魂大神」奉齋を中心に—」(2008.7)을 참고 바란다.

77) 山川鶴市の 전계서, 「47. 龍頭山神社等ノ御由緒及明細書(明治40年)附敬神會沿革」, pp.59-62, 「48. 神社々格附與之義ニ付稟請」, pp.72-73.

永瀬永 외에도 1882년 金刀比羅神社와 辨天社の 개건 사업을 진행할 대리위원으로 선출된 福田増兵衛, 保家貞八, 郡金三郎도 대마도 출신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2명인 福田増兵衛과 保家貞八은 金刀比羅神社가 龍頭山神社로 개칭되는 시기까지 神社건축위원 등을 역임하며 거류지의 神社에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對馬親睦會에서는 1884년, 金刀比羅神社의 주위에 弘國神社 遙拜所를 건립하기도 하였으며, 1896년에는 金刀比羅神社에 弘國大神을 합사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마도의 마지막 藩主였던 宗重正은 백작의 신분으로서 거류지의 神社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류민들의 기부금을 모으는 일에 앞장섰다.

(2) 祭神의 鎮坐와 그 배경

神社에는 그 神社를 상징하는 神이 鎮坐되어있다. 그 神을 祭神이라고 한다. 祭神은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神社가 갖는 특징의 하나가 된다.

1867년 10월 17일,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권력을 찬탈한 메이지정부는 神祈官再興의 방침을 명시하면서부터 神社·神道관련 政策을 통해 민중의 정신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존 神社의 祭神들로부터 민속신앙·불교 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통제하려 했던 사실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거류지 내 神社의 祭神에 대한 분석도 메이지 정부의 神社政策과 함께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때 거류지 내에서 ‘公有神社’로 불리며 정비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龍頭山神社와 辨天神社를 중심으로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이 두 神社의 祭神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5>는 1907년 당시 龍頭山神社의 祭神의 鎮坐현황이다. 당시의 龍頭山神社에는 金刀比羅大神을 비롯한 총 9좌의 祭神이 鎮坐되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9좌의 祭神들은 鎮坐時期로 미루어 볼 때, 크게 초량왜관의 시기에 鎮坐된 4좌의 祭神과 그 이후에 鎮坐된 5좌의 祭神으로 나눌 수 있다.

78) 社務所는 神社의 전반적인 사무를 취급하는 장소로 神札 등의 수여와 기도의 접수를 받는 장소도 겸하는 곳이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神職의 집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메이지시 이후부터는 神社가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공적사무로 취급되어 社務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神道事典』, 「社務所」, p.180.)

<표 5> 龍頭山神社의 祭神현황 (1907년)

祭神	祭神名	御神體	鎮坐時期	備考
金刀比羅大神	大物主	金紙幣	1678. 3	
住吉大神	底筒男 中筒男 表筒男	白紙幣	年月不詳	
菅原大神	菅原道眞	同上	1765. 7	
天照皇大神	天照大神	大麻, 白紙幣	1865. 2	
八幡大神	慶神天皇	白紙幣	1880.8.15	
弘國大神	宗義智	鏡	1896.4.1	
素盞鳴大神	素盞鳴尊	同上	1899.4.23	
神功皇后大神	息長足姬命	同上	同上	
豊國大神	豊臣秀吉公	同上	同上	

(자료: 龍頭山神社社務所, 『龍頭山神社史料』(1936), 「47. 龍頭山神社等ノ御由緒及明細書(明治40年)附敬神會研革」, pp.59-61.)

근세 일본인들의 신앙습관으로 미루어 볼 때, 초량왜관에서 조선과의 무역을 담당하던 대마도 사람들이 에도시대에 들어 향해의 수호신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金刀比羅大神과 住吉大神을 모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金刀比羅大神은 金刀比羅大權現이라고도 한다. 향해 중인 사람들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金毘羅大權現의 이름을 부르고, 모발을 자르거나 소지품을 바다에 던지면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에도시대의 중반 무렵부터는 瀬戶内海 주변에서 金刀比羅大神가 향해의 수호신으로서 해운업자·선원·어민들에게 중요한 신으로 믿어졌다고 한다.⁷⁹⁾

丹後⁸⁰⁾의 바닷가에는 항에서 가까운 산에 ‘一万燈さん’이라는 祠⁸¹⁾가 있는데, 그곳에는 ‘住吉さん·金毘羅さん’을 함께 모시고 있어, 그 앞바다를 출입하는 배는 반드시 신들을 향해 절을 한번 해야 했다고 한다.⁸²⁾ 그리고 태평양과 일본해 연안을 불문하고, 일본열도 연안의 항 근처에는 ‘日和山’이라고 부르는 산

79) 守屋毅編、『金毘羅信仰』、岩井宏實雄山閣出版、1987、p.98.

80) 단고: 京都府의 북부에 있는 지역.

81) 호코라: 규모가 작은 神社를 말함.

82) 守屋毅의 전게서, p.100.

이 많이 있는데, 近世 이래의 주요한 항에는 ‘거의’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였다고 한다. 日和山은 대체로 작은 산이지만, 해상에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고, 정상에는 보기 쉽도록 큰 숲이 있다거나, 燈籠이 세워져 있어, 야간 입항에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또 神佛의 祠堂이 세워진 것도 많았다고 한다. 그곳에는 住吉·金毘羅·白山·稻荷 등 다양한 神이나 佛이 모셔졌는데, 모두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항해안전, 어업번영의 가호를 바라고 신앙하는 神佛이었다고 한다.⁸³⁾ 이러한 사례들은 부산 일본인 거류지의 金刀比羅神社가 龍頭山 정상에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住吉大神에 이어 1765년에 鎮坐된 菅原大神은 헤이안시대 전기의 유학자였던 菅原道眞을 신격화 한 것으로, 지금도 京都의 北野天滿宮과 福岡의 大宰府天滿宮 두 곳에서 학문의 신으로서 널리 신앙되고 있다. 그런데 菅原大神이 鎮坐된 1765년은 에도시대 중기의 유명한 유학자인 雨森芳洲가 대마도에서 사망한지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는 22세에 스승인 木下順庵의 추천으로 대마도에 관직을 얻어 부임하게 된다. 그는 부임 중 3년 동안 초량왜관에 와서 조선어를 배웠고, 그 후 대마도로 돌아가 1727년에 조선어학교를 개교하여 수많은 조선어 역관들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雨森芳洲가 대마도에서 사망한지 10년째 되던 해에 菅原大神이 鎮坐되었다는 사실은 雨森芳洲가 대마도에서 행한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1865년 2월, 金刀比羅神社에 鎮坐된 天照皇大神은 대마도의 嚴原에 위치한 天照皇大神宮의 神靈을 神職 井田山城이 옮겨 모신 것이라고 한다.⁸⁴⁾ 天照皇大神이 鎮坐되어 있는 神社 중 가장 유명한 곳은 三重縣의 이세신궁이다. 8세기 초, ‘神祇制度’에 의해 이세신궁은 전국 神社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황실의 조상신이었던 天照皇大神도 최고의 신으로 승격된다. 중세에 들어서며 이세신앙의 민중화가 진행되었고, 15세기 후반에는 민중의 이세신궁 참배가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세에 들어서며 이세신궁에 참배하려는 열광적인 집단순례가 약 60년을 주기로 유행처럼 번졌다고 한다.⁸⁵⁾

83) 守屋毅의 전게서, p.101.

84) 山川瀧市の 전게서, 「38. 龍頭山神社其他御祭神並ニ沿革」, p.41.

85) 伊勢神宮에 참배하는 집단 순례자가 많을 때는 약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세신앙의 보편화와 함께 19세기 서구열강의 위협으로 인해 확산된 위기의식과 존왕양이 사상은 이 시기 天照皇大神가 金刀比羅神社에 모셔지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金刀比羅大神을 시작으로 天照皇大神까지 총 4좌의 祭神의 鎮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4좌의 祭神은 메이지유신 이전, 초량왜관의 대마도인들에 의해 鎮坐된 것이다. 그리고 이 祭神들의 鎮坐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의 기복신앙적 신앙습속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八幡大神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鎮坐되는 祭神은 메이지유신 이후, 초량왜관이 일본인거류지로 변모된 이후에 거류민들에 의해 모셔진 것이다. 1880년 8월 15일, 金刀比羅神社에 鎮坐된 八幡大神的 원래 호칭은 八幡大菩薩이었다. 그러나 1868년 4월 24일 太政官의 통지에 의해 八幡大菩薩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八幡大神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八幡大神은 대마도 嚴原의 清水山麓에 위치한 八幡宮神社의 神靈을 거류지회의원 福田增兵衛, 保家貞八, 齋藤萬次郎가 기획하여 金刀比羅神社로 옮긴 것이다. 이 祭神은 예부터 대마도에서 모셔져왔고 당시 거류민들 대부분이 대마도의 嚴原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鎮坐된 것이라고 한다.⁸⁶⁾

대마도의 옛 藩主였던 宗義智를 상징하는 弘國大神은 1884년 10월 3일, 對馬親睦會會員들이 영사관의 허락을 얻어 金刀比羅神社의 주위에 遙拜所를 만들면서부터 모셔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弘國大神은 對馬親睦會에 의해 1896년 4월 1일, 金刀比羅神社에 합사되었고 그 鎮坐儀式에는 神職 永瀬永, 居留民總代 阿比留護助와 對馬島親睦會長인 古藤昇一郎 등이 참여하였다.⁸⁷⁾

弘國大神的 鎮坐는 메이지정부가 천황을 중심으로 한 神社의 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던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거류지에서의 특이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메이지정부는 1868년 3월 28일의 ‘神佛分離令’, 1876년 2월의 ‘小祠廢併

(박규태, 『일본의 신사』, 살림출판사, 2006년, p.25, p.59)

86) 山川鶴市の 전게서, 「38. 龍頭山神社其他御祭神並ニ沿革」, p.41.

八幡大神的 鎮坐에 대해서는 1880년 이후, 거류지의 神社에 鎮坐되는 祭神들이 한반도의 진출과 관련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당대 일본인들의 욕구가 반영되어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승,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구성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 제20호, 2007.4, p.18.)

87) 山川鶴市の 전게서, 「38. 龍頭山神社其他御祭神並ニ沿革」, p.41.

습수' 등의 포고와 함께 일본 내 여러 지역의 神社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조사한 지역의 神社 중 지역적·불교적·민간신앙적 성격이 강한 祭神이 모셔진 神社에 대해서는 祭神 및 社號의 교체 또는 神社의 파괴 등을 명하였다. 그러한 일본 국내의 과정과 비교한다면 대마도를 상징하는 弘國大神의 鎮坐는 부산 일본인거류지만의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899년 4월 23일, 神習教 少教正 矢橋寬一郎은 東京의 神習教 官長 芳村正秉에게 의뢰하여 素盞鳴大神, 神功皇后大神, 豊國大神 이렇게 3좌의 祭神을 龍頭山神社에 合祀시킨다. 素盞鳴大神 외 2좌의 祭神이 鎮坐된 배경에는 '外征의 위업을 떨쳐 外鎮의 공덕이 현저하니 그것을 추앙'함에 있었다.⁸⁸⁾ 神習教는 初代官長이었던 芳村正秉이 1881년 東京의 神田에 神道神習教教會를 설립한 후, 1882년 教會가 神道神習教로 독립하면서 탄생했다고 한다. 芳村正秉은 에도시대 말기부터 존왕양이 사상을 주장했던 인물로,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메이지정부의 神祈官과 教部省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⁸⁹⁾ 그러나 메이지정부가 大敎院을 중심으로 하는 신불합동포교정책을 취하자 이에 반대하고 教部省을 떠나 神習教의 창시에 주력하였다.⁹⁰⁾

이렇게 창설된 神習教는 다른 교파신도와 비교해 볼 때, 조선에서 그 세력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 <표 6>은 1924년 현재, 조선 내 교파신도별 신자 수이다.

<표 6> 조선 내 교파신도별 신자 수(1924년)

	일본인	조선인	계
天理教	24,249	8,247	32,496
金光教	23,498	530	24,028
神理教	10,387	86	10,473
大社教	7,434	271	7,705
神習教	363	4	367
實行教	30	0	30

(출처 : 한일종교연구 포럼, 『한일 근현대와 종교문화』, 청년사, 2001, p.205, 재인용)

88) 山川鶴市の 전게서, 「38. 龍頭山神社其他御祭神並ニ沿革」, p.41.

89) 야스마루 요시오의 전게서, p.199.

90) 『神道事典』, 「神習教」, p.466.

그리고 1936년의 神習教教勢에 따르면 教師가 3,496명 그리고 教會가 255개 였는데, 이중 식민지였던 조선에는 教師만 19명이 있었을 뿐이었다.⁹¹⁾ 天理教가 1893년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조선포교활동을 개시하여, 1910년 당시 조선 전국에 13개의 포교소를 설립한⁹²⁾ 것과 비교하여도 神習教의 교세가 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神習教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1899년 3좌의 祭神이 神習教徒를 통해 龍頭山神社에 合祀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 메이지정부가 각 교파신도에 취했던 태도와 거류지의 神社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矢橋寬一郎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神習教의 창시자인 芳村正乘은 에도시대 말기, 존왕양이 사상을 주장하다 막부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나, 메이지유신 이후 神祈官과 敎部省에서 근무하게 된다. 芳村正乘의 이러한 경력은 天理教나 金光教 등 몇몇 교파신도가 초기에 메이지정부로부터 사이비 종교로 취급되어 그들의 활동 전반에 제재를 받았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실제로 天理教의 敎主인 中山みきは 경찰로부터 ‘天理王이라는 신은 없다, 모시려거든 大社의 신을 모셔라’는 간섭과 탄압을 받기도 하였고⁹³⁾, 1893년부터 조선에서 포교를 시작했던 天理教徒는 메이지정부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지 못해 조선으로 밀입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입국을 해도 강제 추방당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⁹⁴⁾ 일본의 무력적 조선 진출이 조선의 문명화(근대화)를 원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던 메이지정부에 있어서, 일본 국내에서 미신집단으로 낙인찍힌 天理教의 전파는 신흥근대국가 일본의 치부를 대외에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⁹⁵⁾ 메이지정부의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 친정부성향의 神習教는 부산 일본인거류지에서 다른 교파신도에 비해 수월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神習教의 신도인 矢橋寬一郎은 1894년 3월 9일, 金刀比羅神社에서 열린 메

91) 田中義能, 『神道神習教の研究』, 精興社, 1935, pp.71-72.

92) 이원범, 「근대 한일관계와 천리교운동」, 『한국종교연구회회보』, Vol.6, No1, 1995, pp.33-34.

93) 村上重良의 전계서, p.110.

94) 이원범의 같은 논문, p.33.

95) 한일종교연구 포럼, 『한일 근현대와 종교문화』, 청년사, 2001, p.193에서 정리.

이지천황의 銀婚式 축하행사에 齊主로서 참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領事 室田 義文 이하 여러 관리들도 참가하였다고 한다.⁹⁶⁾ 이외에도 그는 1898년부터 시작된 金刀比羅神社 개축사업의 건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1899년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遷宮式 및 기타 祭典의 齊主로 참여하기도 하였다.⁹⁷⁾ 矢橋寬一郎가 이처럼 거류지의 神社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사실과 그가 친정부성향이었던 神習敎의 신도였다는 점은 1899년 龍頭山神社에 새로운 3좌의 祭神이 合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辨天社 및 辨天神社의 祭神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辨天社를 辨天神社로 개칭한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으나, 1907년 이후의 자료에서는 辨天社가 아닌 辨天神社라고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는 1899년의 辨天社와 1907의 辨天神社의 祭神현황이다.

<표 7> 辨天社의 祭神현황(1899년)

祭神	祭神名	御神體	鎮坐時期	備考
辨財天		木像	1678. 3	
毘沙門天		木像	不詳	

(참조: 龍頭山神社社務所, 『龍頭山神社史料』(1936), 「38. 龍頭山神社其他御祭神並ニ沿革」, p.38.)

<표 8> 辨天神社의 祭神현황(1907년)

祭神	祭神名	御神體	鎮坐時期	備考
巖島大神	市杵島姬命	白紙幣	1678. 3	

(참조: 龍頭山神社社務所, 『龍頭山神社史料』(1936), 「47. 龍頭山神社等ノ御由緒及明細書(明治40年)附敬神會研革」, p.61.)

1899년 辨天社에는 辨財天과 毘沙門天이라는 두 祭神이 鎮坐해 있었다. 辨財天은 원래 辨才天이라고 불렸으며 지혜와 물의 여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상품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무로마치시대 이후 재물의 수호신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辨財天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⁹⁸⁾ 毘沙門天 역시 불교에서 多

96) 山川鶴市の 전계서, 「38. 龍頭山神社其他御祭神並ニ沿革」, p.39.

97) 山川鶴市の 전계서, 「38. 龍頭山神社其他御祭神並ニ沿革」, p.43.

聞天, 施財天라고도 불리며 불법의 수호와 재물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祭神의 성격과 함께 辨天社 앞에 세워져 있던 좌우의 石燈籠에 「陳皮商人」이라는 문자가 음각되어 있었다는 기록⁹⁹⁾으로 미루어 볼 때, 辨天社에 鎮坐된 祭神의 성격은 재물과 관계가 깊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99년의 辨天社를 1907년의 辨天神社와 비교해 보면, 2좌의 祭神이 嚴島大神(市杵島姬命)이라는 1좌의 祭神으로, 木像의 神體가 白紙幣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龍頭山神社의 祭神 중 八幡大神的 경우에서도 확인한 것과 같은 1868년부터 실시된 메이지정부의 ‘神佛分離政策’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神佛分離政策’의 주된 목적은 神社들로부터 佛敎色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祭神의 이름에서 ‘菩薩’이라는 불교식 칭호가 폐지되었으며, 佛像 또는 佛具를 神社 내에서 철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辨財天과 함께 鎮坐 되어있던 毘沙門天이 市杵島姬命이라는 神道계 항해의 수호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부산 일본인 거류지의 神社에서도 메이지정부의 ‘神佛分離政策’이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龍頭山神社와 辨天神社의 祭神에 대해 알아보았다. 龍頭山神社와 辨天神社에는 각각 초량왜관 시기부터 鎮坐해온 祭神들이 있었으며, 龍頭山神社의 경우에는 1899년까지도 祭神들의 합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지기 전, 龍頭山神社와 辨天神社에 鎮坐되어 있던 祭神들은 대체로 당시 사람들의 신앙습속에 의해 모셔진 것이었다. 그러나 龍頭山神社에 1880년과 1899년에 각각 鎮坐되었던 八幡大神과 素盞鳴大神의 2좌의 祭神 그리고 辨天神社의 祭神 및 神體의 변화를 통해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이 거류지의 神社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메이지유신 이후, 神社의 祭神에 대한 메이지정부의 통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일본인거류지에는 여전히 그 지역의 특색이 祭神의 鎮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이지정부는 각 지방의 神社에서 地方色이 강한 祭神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1896년, 對馬親睦會의 발기에 의해 옛 대마도주를 상징하는 弘國大神의 鎮坐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거류지의 神社가 갖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8) 다카히라 나루미 외, 『여신』, 이만옥 역, 들녘, 2002, p.179.

99) 釜山府, 『釜山府史原稿 1』, 민족문화사 영인본, 1938, p.332.

IV. 결 론

개항기를 중심으로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神社가 정비되는 과정을 거류민들(특히 대마도 출신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부산지역에 공식적으로 일본인사회가 형성된 것은 15세기 초 부산포왜관이 만들어졌을 무렵으로 보인다. 부산포왜관 내 일본인들은 일본의 항구도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절과 승려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앙생활도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 상으로는 부산포왜관 내 神社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중세 일본인들의 신앙습관으로 미루어 볼 때, 神社가 없었을 것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임진왜란 후 부산지역에만 남아있던 왜관이 철폐되나, 1607년 두모포에 다시 개관된다. 두모포왜관은 약 70년간 이용되다가 1678년 초량지역으로 옮겨지게 된다. 초량왜관 시기부터는 神社의 존재가 확실히 밝혀지는데, 이 시기의 神社에는 당시 거주하던 대마도인들이 신앙습관에 따라 항해의 수호와 재물에 관계된 祭神이 모셔져 있었다.

부산이 개항되고 이듬해인 1877년, 초량왜관이 폐쇄되고 그 부지에는 일본인거류지가 만들어진다. 초량왜관 내의 神社들은 일본인거류지의 神社가 되고 이후 거류민들에 의해 관리되게 된다.

1868년부터 일본 국내에서는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에 의해 민중들의 신앙이 神社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수많은 神社들이 국가 정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되어 1914년에 이르면 약 20만개에 이르던 神社가 약 14만개로 감소하게 된다. 이때 일반 민중들은 대대로 신앙해 오던 신들이 강제로 사라지거나 이름이 바뀌게 되는 혼란을 겪게 되고 이것은 곧 정부에 대한 크고 작은 반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부산 일본인거류지 내 神社도 메이지정부의 神社·神道政策의 영향에 따라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마도출신자들은 메이지정부가 神社·神道政策을 통해 의도하였던 것에 응하거나 반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神職이었던 永瀬永은 대마도의 嚴原출신으로 1880년부터 거류지의 神社의 관

리를 맡아 1900년까지 神社의 개축과 보수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그의 건의를 통해 만들어진 社務所는 거류지의 神社에서도 공적인 神社 업무가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07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龍頭山神社의 社格昇格에 관한 건의가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1884년, 對馬親睦會는 영사관의 허락을 얻어 옛 대마도주인 宗義智를 상징하는 弘國大神을 모시는 弘國神社遙拜所를 金刀比羅神社의 주위에 만들었다. 그리고 1894년에는 弘國大神이 金刀比羅神社에 合祀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메이지정부가 神社·神道정책을 통해 추진하였던 ‘神社=國歌’의 구도 형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1899년 神習教徒인 矢橋寬一郎에 의해 龍頭山神社에 素盞鳴大神의 2좌의 祭神이 鎮坐되었다. 당시 부산에는 神習教외에도 天理教와 같은 다른 교파신도가 진출하여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神習教가 祭神의 鎮坐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교파신도와 달리 친정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1880년부터 시작된 정비작업을 통해 龍頭山神社는 부산 일본인거류지를 대표하는 神社로 거듭났으나, 그 社格은 여전히 無格社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敬神會 회원들은 1907년부터 龍頭山神社의 社格昇格을 건의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당시 부산 일본인사회의 규모에 맞게 國幣社에 해당하는 社格 부여를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이것이 승인되는 것은 1936년이 되어서였다.

거류민들이 스스로 거류지의 규모에 맞게 神社의 社格을 부여토록 정부에 요구했다는 사실은 1871년에 만들어진 ‘社格制度’를 보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社格制度’는 그것에 의해 神社들이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고, ‘國家神道’가 형성되는 기초가 되었다는 식으로 간단히 이야기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항기 재부산일본인들의 社格昇格 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역 神社의 社格이 지역민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社格制度’에 대한 해석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개항기 부산 일본인사회와 神社에 대해 대마도 출신 거류민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개항기 부산 일본인사회와 메이지시대 전·후의 神社·神道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거류지의 神社를 둘러싼 많은 이

야기들을 풀어내지 못했다. 특히, ‘대마도 출신자들이 神社의 정비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이유’, ‘거류지의 정부기관 및 자치기구와 神社의 상관관계’, ‘친목회 등과 같은 사회단체와 神社의 관계’, ‘통감부, 조선총독부의 설치가 거류지 神社에 미친 영향’ 등과 같은 점들은 개항기 부산 일본인사회와 神社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었으나 담아내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은 추후 계속될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향후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동아시아(동북아·동남아를 포함하는) 각국의 근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당해 지역의 일본인사회와 神社의 관계 및 그 변화 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무라이 쇼스케, 『중세 왜인의 세계』, 이영 역, 소화, 2003.
- 무라이쇼스케,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 손승철·김강일 역, 경인문화사, 2008.
- 다시로 가즈이, 『왜관』, 정성일 역, 논형, 2005년.
- 야스마루 요시오,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종교 변혁』, 이원범 역, 소화, 2002.
- 야스마루 요시오, 『근대 천황상의 형성』, 박진우 역, 논형, 2008.
- 박규태, 『일본의 神社』, 살림출판사, 2006년.
- 다카히라 나루미 외, 『여신』, 이만옥 역, 들녘, 2002.
- 한일종교연구 포럼, 『한일 근현대와 종교문화』, 청년사, 2001.
- 大曲美太郎, 『釜山の 古蹟과 遺物』, 김의환 역, 아성출판사, 1969.
- 村上重良, 『国家神道』, 岩波新書, 1970.
-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釜山』, 桜井書店, 2007.
- 守屋毅編, 『金毘羅信仰』, 岩井宏實雄山閣出版, 1987.
-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 弘文堂, 2004.



<사 료>

-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日韓昌文者, 1905.
- 高矯章之助, 『宗家と朝鮮』, 北内印刷所, 1920.
- 田中義能, 『神道神習教の研究』, 精興社, 1935.
- 山川鶴市, 『龍頭山神社史料』, 龍頭山神社社務所, 1936.
- 釜山府, 『釜山府史原稿 1』, 민족문화사 영인본, 1938.

<논 문>

- 김동철, 「15세기 부산포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 『지역과 역사』, 제22호, 2008.
- 이원범, 「근대 한일관계와 천리교운동」, 『한국종교연구회회보』, Vol.6, No1, 1995.
- 김승, 「개항 이후 1910년대 龍頭山神社와 龍尾山神社의 조성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 제

20호, 2007.

沈箕載, 「메이지 5년 하나후사(花房)일행의 조선 파견」, 『東洋學 제34輯』,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003.8.

青野正明,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における國幣小社列格 — 「國魂大神」奉齋を 中心に— 」, 『桃山学院大学人間科学』第35号、2008。

<기 타>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1899년 7월 1일, 『中外日報』, 「韓國布教一斑」.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9.

